

# 종교인의 사회 공헌 활동

## - 천리교 양부모 양육자 조사를 통해 -

아오키 시게루 (도쿄공업대학)

### 1. 머리말

일본에서는 2001년 이후 아동학대가 표면화되면서 심각한 사회문제가 되고 있다. 이 수는 지금도 계속 늘어나고 있다. 학대에 대한 대응은 2020년도에 상담이 20.5만 건, 일시보호가 2.7만 건, 시설 입소는 약 4,300건이었다. 학대나 어떤 사정으로 친부모가 키울 수 없는 아이들은 시설이나 양부모 밑에서 사회적 양육이 이루어진다<sup>1)</sup>.

천리교<sup>2)</sup> 신앙인은 많은 양자를 맡아 사회적 양육을 하고 있다. 천리교 양부모연맹의 2017년 통계에 따르면 양부모 수는 총 368명, 위탁 중인 아동 수는 754명이다. 이는 전국 양부모의 7.4%(자녀 수에서는 9.4%), 전문양부모에서는 48.9%(자녀 수에서는 64.7%)를 차지하고 있다.

본 발표는 천리교 신앙인이 행하는 양부모 양육의 특징을 종교인의 사회공헌활동이라는 관점에서 밝히고자 하는 것이다. 천리교의 양부모 양육자에게 질문지 조사를 실시하고, 그 데이터를 바탕으로 양육가족의 구성, 양부모의 사회공헌활동, 그리고 지역의 이해 등에 대해 그 활동 내용을 조사하였다.

### 2. 본 연구의 의의

일본의 종교사회학 연구 분야에서는 한신 아와지 대지진(1995년)과 동일본 대지진(2011년)을 계기로 종교의 사회공헌이 큰 연구 과제가 되었다. 종교인의 지진 재해 복구에 대한 사회공헌 등은 동기, 지원 조직, 경제적인 지원 등에서 다각적인 지식이 축적되어 왔다.

종교인의 지진 재해 시의 사회공헌이라고 하는, 비일상적이기 때문에 눈에 띄는 ‘활동’에 대해서는 연구가 진행되어 왔지만, 일상 속에서 보기 힘든 육아 지원이나 개호 부분은 충분히 연구가 축적되어 왔다고는 말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아동학대 등의 사건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더 많은 생활 속의 식견을 조사로부터 얻어 과제 해결에 일조할 필요가 있다고 여겨진다.

### 3. 조사방법과 윤리적 배려

본 조사는 2022년 3월 말 천리교 양부모연맹 전체 회원(620여명)에게 우편으로 질문지를 배부하고 5월 말까지 도쿄공업대학 유미야마연구소로 무기명으로 우편을 받는 형식으로 실

- 1) 일본에서는 사회적 양호를 실시하는 시설의 종류에는 다음과 같은 것이 있다. 유아원, 아동양호시설(보호자가 없는 아동, 학대받고 있는 아동, 기타 환경상 양호가 필요한 아동), 아동심리치료시설, 아동자립지원시설(불량행위를 하거나 그런 우려가 있는 아동 및 가정환경, 기타 환경상의 이유로 생활지도 등이 필요한 아동), 모자생활 지원시설, 자립지원홈(의무교육을 종료한 아동으로, 아동양호시설 등을 퇴소한 아동). 이 양부모 수에는 패밀리홈도 포함한다.
- 2) 나라현 덴리시에 있는 천리교는 에도 막부 말기인 1838년 교주 나카야마 미키가 하늘의 계시를 받고 세운 신흥종교이다. 천리교의 중심적 생각에는 ‘도움’이라는 구제사상이 있다. 신자들에게는 ‘남을 도움으로써 내 몸이 도움 받는다’라는 이 ‘가르침’이 정착되어 있다. 또 ‘히노키신’이라는 신에 대한 보은과 감사를 신앙 활동 속에서 나타내는 것도 중시되는데, 양부모 양육의 배경에는 이러한 사상이 자리잡고 있다.

시하였다. 조사는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회원에게 보내는 우편물은 천리교 양부모연맹에 의뢰하였다. 송부 봉투에는 학술적 조사 취지를 설명한 의뢰장, 천리교 사회포교과와 천리교 양부모연맹으로부터의 연명(連名) 의뢰장, 그리고 조사 질문지 총 3건을 동봉하였다.

윤리적 배려 차원에서 조사결과는 학술논문과 천리교 양부모연맹 활동 이외에는 사용하지 않을 것을 명기하였으며, 답하고 싶지 않은 항목은 기입 불필요하다는 취지를 명기하였다.

## 4. 조사 결과

회수한 질문지는 257건(회수율 41.5%)이었다. 기입 데이터는 엑셀에 입력하여 집계·분석하였다. 천리교 신앙인은 왜 많은 양자를 양육하고 있는지, 그 의문점을 밝히기 위해 '양육 가족의 구성', '양부모의 사회공헌 활동', 그리고 '지역의 이해' 이 세 가지 관점을 통해 본 조사결과를 기술한다.

### 4.1 양육가족의 구성

조사 결과로부터 천리교 신자이면서 양부모 양육을 하고 있는 가정의 특징은 대가족이었다. 양부모의 가족 수 평균은 7.6명(표준편차 3.3, 최소 2명·최대 19명)이며 가족은 양부모, 친자, 조부·조모, 동거인, 2·3가구 등이 동거하고 있었다. 일본의 평균 가구원수는 2.49명(2020년)으로 이에 비하면 약 5%포인트 많다.

또 응답에서는 동거하는 친자 수도 많았는데 18세 미만이 평균 3.3명(최대 6명), 18세 이상이 평균 2.0명(최대 6명)이었다.

일본은 지금 소수로 구성된 가구, 고령화, 저출산이 진행되고 있다. '1인 가구'는 1,124만 가구에서 1,453만 가구로, '한부모와 자녀로 구성된 가구'도 311만 가구에서 462만 가구까지 증가하였다. 14세 이하 인구는 12.0%로 감소하였으나, '고령화율'은 2020년에 65세 이상이 28.9%에 달하였다. 또 이토(2019)가 실시한 양부모 조사 연구에서는 양부모 가정의 평균 인원은 4.07명이었다. 조사에서는 현대 일본의 경향과는 반대로, 천리교 양부모 양육가정은 대가족임을 보여주고 있다.

대가족의 장점은 자녀의 양육력이 잠재적으로 크고 양육하기 쉬운 환경이라고 생각된다. 전후의 일본에서는 대가족이 자취를 감추면서 구조에 변화가 일어나고 있다(모리오카, 1992). 아동학대 등의 과제가 증가하는 것도 가족의 아이를 키우는 양육력이 저하된 결과라고 여겨지고 있다.

또 다른 조사 결과에서는 교회에는 평균 1.2명, 최대 20명의 혈연관계가 없는 동거인(천리교에서는 입주인이라 부름)과 함께 양자가 생활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이 교회에 들어와 사는 이유는 경제적 이유로는 '살 곳이 없음', '병', '가정불화', 교회 후계자로서는 '교회 도우미', '장차 교회장을 이을 준비', 이 두 가지 이유가 있었다. 전자의 경우는 어려운 상황에 있는 사람을 받아들이는 복지적인 기능을 교회가 수행하고 있다.

사회적 양육의 대상이 된 아이들은 대가족 안에서 다양한 사람들과 관계를 맺으며 그 속에서 인간관계를 재구성하는 학습의 기회를 얻고 있다고 생각된다. 천리교 교회의 대가족은 종교적인 소셜 캐피털의 기능을 수행한다고 볼 수도 있다.

### 4.2 양부모의 사회공헌 활동

조사 결과에서 천리교 신앙인 양육자의 상당수는 천리교 분교 회장(229명, 91%, N=253)이고, 수많은 사회공헌 활동에도 관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양부모 양육 이외에 ‘재해 구호 히노키신대’(천리교의 독자적인 재해 지원 활동) 107명 (42%·복수응답, N=257), 지역의 복지나 사법 업무를 담당하는 민생위원·아동위원(33명 13%·복수응답, N=257), 보호사(25명 10%·복수응답, N=257), 교회사(11명 4%·복수응답, N=257) 등의 활동에도 참가하고 있다고 답하였다. 심지어 최근 ‘어린이 식당’을 10명이, ‘푸드뱅크’를 10명이 시작하였다는 응답도 있었다.

이러한 많은 사회공헌 활동은 무보수이다. 양부모 양육은 ‘아동수당’이 지급되지만, ‘재해 구호 히노키신대’, ‘민생위원·아동위원’, ‘교회사’는 무상, ‘보호사’는 일부 비용 변상이 지급되지만 기본적으로는 무상이기 때문에 양부모의 사회공헌에 대한 동기가 있다고 할 수 있다.

조사에서는 또 ‘왜 양부모가 되었는가?’라는 질문에는 ‘천리교의 ‘도움’이라는 종교적 가르침에서’라는 답변이 가장 많았고(179명 70%·복수응답, N=257), 다음으로 ‘교회의 사회공헌’(158명 61%·복수응답, N=257)이 뒤를 이었다.

이 ‘도움’이라는 사상은 천리교의 기본 가르침이기도 하다. 천리교에서는 신이 인간을 만든 목적은 인간이 이 세상에서 ‘즐겁게 사는 것’을 보고 싶어서라고 설명한다. 그런데 인간은 ‘아깝다, 갖고 싶다, 밋다, 예쁘다, 원망, 화, 욕심, 오만’이라는 여덟 개의 먼지를 쌓음으로써 행복해질 수 없다. 이 먼지를 털어내 마음을 맑게 함으로써 치유되고, 구원으로 이어진다고 설명하며, 또한 그것을 많은 사람에게 전함으로써 사람들은 현세에서 행복해진다는 가르침(시마조노, 2020, p220-223)으로, 천리교의 구제관인 ‘도움’이다. 양부모가 다양한 사회공헌 활동을 함에 있어서 밑바탕이 되는 생각이라고 할 수 있다.

### 4.3 지역의 이해

양부모 활동을 하는 천리교 신자의 양부모는 주위에서 어떻게 받아들여지고 있을까. 우선 자신의 교회 내에서 받아들여지는 방식을 묻은 결과이다. ‘교회 내부에서 양부모 양육 활동에는 비판이 있는가’라는 질문에는 ‘때때로 비판받는다’(10명 4%, N=248), ‘비판이 상당하다’(2명 1%, N=248), ‘반대는 전혀 없다’(146명 59%, N=248), ‘거의 없다’(77명 31%, N=248)는 결과가 나와, 교회 신자들은 교회장이 하는 양부모 양육활동을 긍정적으로 보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또 지역으로부터의 이해는 ‘충분히 이해를 얻고 있다’(80명 32%, N= 247), ‘대부분 얻고 있다’(82명 33%, N=247)로, 양부모는 지역사회로부터도 이해를 얻고 있다고 파악하고 있었다.

한편 양부모 양육의 창구인 아동상담소는 아동 처우에 대한 권한을 가지는데, 아동상담소와의 관계를 묻자 ‘아동상담소는 매우 협조적이다’(54명 22%, N=243) ‘협조적이다’(103명 42%, N=243)로 양호한 관계를 유지하면서 양육하고 있었다.

하지만 천리교 양부모 양육 활동에 대해 외부 사람들도 이해를 하고 있고 활동이 알려져 있는지를 묻자, ‘매우 고마워한다고 생각한다’(33명 14%, N=241), ‘고마워한다’(151명 63%, N=241)였다. 그러나 활동에 대해서는, ‘더 알아주었으면 좋겠다’(52명 21%, N=242), ‘알아주었으면 좋겠다’(118명 48%, N=242)로, 양부모는 활동의 정보가 일반인에게는 충분히 전해지지 않고 있다고 느끼고 있었다.

교회 내부, 지역 주민, 그리고 아동상담소와는 이해와 관계가 문제없이 진행되고 있지만, 교단 밖 사람들에게는 천리교 양부모 양육 활동이 충분히 알려지지 않고 있다고 양부모는 받아들이고 있었다.

## 5. 정리와 향후 과제

국가의 방침으로는 2010년대부터 「아동·육아 비전」(2010년)에서 양부모 위탁률에 수치

목표를 제시하였고 「양부모 위탁 가이드라인」을 제정(2011년)하였다. 또 2017년의 「새로운 사회적 양육 비전」을 제시하며 사회적 양육을 시설에서의 양육에서 가정에서의 양육으로 양부모 양육 활동을 확대하여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다<sup>3)</sup>(후생노동성, 2017).

그러나 양부모 양육이 앞으로 더욱 전개될지는 몇 가지 관점에서의 고찰이 필요하다. 다카다(2012/2014, p6)는 “복지는 가족, 기업, 지역사회, 상호부조단체, 자선단체, 상업보험회사, 종교조직, 지방공공단체, 국가, 초국가조직 등 다양한 역사주체와 다원적인 원리로 구성된 구조적 복합체이다. 이는 ‘복지의 복합체’로 표현할 수 있다.”라고 제시하며 복지정책은 외적 및 내적 요인 등으로 결정되고 실천되고 있다고 지적한다.

이에 따라 양부모 양육을 보면 외적 요인인 일본의 국가 정책은 매우 적극적이며, 양부모 양육에 관한 수당의 증액<sup>4)</sup>, 양육하기 쉬운 조건 만들기를 실시해 왔다.

내적인 요인은 천리교 양부모 양육 활동의 조사에서 파악할 수 있다. 조사에서는 대가족의 존재, 양부모의 사회공헌 활동에 대한 강한 동기부여, 양호한 지역과의 관계가 천리교 양부모가 두드러지게 존재감을 나타내는 이유였다.

하지만 이번에는 양자의 장애의 종류나 정도, 양육 기간, 양부모와 친자의 관계 등은 조사하지 않았다. 천리교 신앙인의 양부모 가정 내부 사정 등을 보다 세심하게 살피고 종교적 배경을 갖지 않는 양부모를 더욱 늘리는 방안이나 지역 사람들의 이해를 높이는 방법 등, 양부모 양육 내용을 충실히 하기 위한 연구조사가 필요하다. 이것들은 향후의 과제이다.

## 참고문헌

- 青木繁 (2022) 「天理教の里親養育活動 -調査実施結果より-」, 「宗教と社會」學會第30回學術大會、發表  
伊藤嘉余子 (2018) 「平成29年度厚生労働省「子ども・子育て支援推進調査研究事業」課題番号14「里親家庭における養育実態と支援ニーズに関する調査研究事業」報告書、厚生労働省  
<<https://www.mhlw.go.jp/content/11900000/000520434.pdf>> (2022년4월20일檢索)  
가. 國立社會保障・人口問題研究所 (1998) 「日本の世帯数の將來推計 (全國推計) の概要」、國立社會保障・人口問題研究所、  
나. <[https://www.ipss.go.jp/pp-ajsetai/j/Hprj98/NL\\_gaiyo.html](https://www.ipss.go.jp/pp-ajsetai/j/Hprj98/NL_gaiyo.html)> (2022년4월20일檢索)  
グッドマン、R. (2000/2006) 『日本の児童養護—児童養護學への招待—』津崎哲雄譯、明石書店  
厚生労働省 (2017) 「新しい社會的養育ビジョン」、厚生労働省  
<<https://www.mhlw.go.jp/file/05-Shingikai-11901000-Koyoukintoujidoukateikyoku-Soumuka/0000173888.pdf>> (2022년2월22일檢索)  
島蘭進 (2020) 『新宗教を問う』筑摩書房  
天理理教里親連盟 (2018) 『お道の里親子育てハンドブック』天理理教里親連盟  
高田實 (2012/2014) 「福祉の複合体」高田實・中野智世編『福祉』ミネルヴァ書房  
森岡清美 (1992) 「日本家族の現代的變動」4卷4号p1-10『家族社會學研究』

(번역책임자:김예진)

- 3) 「새로운 사회적 양육 비전」에서는 3세 미만에 대해서는 대체로 5년 이내에, 그 이외의 취학 전 아동은 7년 이내에 양부모 위탁률을 75% 이상으로, 학동기 이후에는 10년 이내를 목표로 양부모 위탁률 50%를 실현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4) 후생노동성(2021). 양부모제도(자료집), 후생노동성 아동가정국 가정복지과에 따르면,  
<<https://www.mhlw.go.jp/content/satooyashiryounR3.pdf>> (2022년 4월 5일 검색).  
2021년도의 수당은 양육양부모(90,000엔·2명제 이후부터 90,000엔 가산), 전문양부모(141,000엔·2명제 141,000엔 가산) 일반생활비(유아 60,110엔, 유아 이외는 52,130엔), 기타(유치원비, 교육비, 입학 준비금, 취업, 대학진학 등의 준비금, 의료비, 통원비 등)이다.